

“화합(和合)하여 비상(飛上)하는 서울특별시회” 구축 서울특별시회 이상일 회장

지난 3월과 4월 전국 시·도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제8대 시·도회장이 새롭게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회는 시·도회장을 중심으로 제8대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조직 갖추기에 돌입했다. 본지는 향후 3년간 시·도회를 이끌어 나갈 시·도회장을 인터뷰하여 향후 사업계획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는 이상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을 만나보았다.[편집자주]

1

서울특별시회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각오는

우선 미흡한 저에게 서울특별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서울특별시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겁고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주어진 맡은 바 소임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경기는 주택경기 악화와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장기간 침체되어 우리 설비

업계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울특별시회가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새로 출범한 제8대 집행부의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를 기회라 생각하고,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역대 회장님들께서 협회를 잘 이끌어 주신 전통을 이어 받고 협회를 발전시켜 회원 여러분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화합(和合)하여 비상(飛上)하는 서울특별시회”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적극 협력 추진

서울특별시에서 원·하도급 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 고통경감 활성화 방안인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저가하도급 근절 등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꾸준히 업무협의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올해 말로 검업체한이 폐지됨으로써 설비업계도 2012년도부터 주계약자형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 주계약자형공동도급 물량이 50%로 확대되는 2012년 이후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업계가 주계약자형공동도급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에 적극 협력·동참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은 건물의 시공 과정과 준공 이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령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우리업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과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본회와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겠습니다.

○ 발주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분리발주 활성화에 주력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대외적으로 SH공사, 지하철공사, 서울시교육청 등 관내 발주기관에 분리발주에 대한 효용성을 적극 홍보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대내적으로는 성실시공을 통한 시공품질 확보 및 불법하도급 근절을 적극 홍보하여 분리발주 확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은 21세기의 키워드로 에너지 소비의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건설기술 분

야의 핵심으로서 산학협력 대학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회원사 임직원의 기술개발 교육과 설비건설업 관련학과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등 산학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회원사 및 시·도회 역할분담 체계 확립, 지방 분권화 시대에 적극 대응

서울특별시회는 협회의 가장 중추적인 위치로서 시·도회 회원사 상호 협력을 통한 조정자 역할과 전체 설비업계의 화합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지방 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서울특별시회를 만들어감은 물론 우리업계에 우뚝 설 수 있는 반석을 다지겠습니다.

○ 점진적 변화와 혁신을 통한 협회 위상강화와 회원사 화합 적극 추진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설비건설업이 건설업의 한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협회의 내실을 기하며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화합에 중점을 두고 오직 회원사만을 위한 협회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특별시회의 정책방향은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2010년 5월에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과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의 시행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3월 서울특별시는 자체 발주 물량 중 2010년

3%에 불과한 주계약자형공동도급 비율을 2011년 이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2012년 이후 50%이상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로 발주하되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기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회는 주계약자형공동도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SH공사, 지하철공사 등 서울관내 발주 기관에 확대 시행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

한 성실시공으로 주계약자형공동도급을 통해 분리 발주된 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임으로써 발주기관에게 동 제도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완벽한 시공을 당부드립니다.

서울특별시회 회원사에게 하실 말씀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정 불안 및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침체와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공사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PF대출 부실로 인한 일반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대부분 하도급 공사에 의존하는 우리 업계는 자금 회수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업계 내부의 무리한 저가 수주 경쟁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저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저가수주 방지는

지난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책이라 생각되어 저도 맨 앞에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꼭 동참하시어 다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원 여러분을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모시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회원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회원사를 위한 서울특별시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함께 출범한 제8대 집행부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업계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 상 / 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 1950년생(62세)
-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제 4·5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 운영위원
- 제 6·7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사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비상임 감사
- (사)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건축위원
-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회장(現)
- 한국해비타트 건축위원(現)